



월드컵 소식

아드보카트 재계약 사실상 무산

축구협과 협상시한 만료

독일월드컵(59) 축구대표팀 감독이 독일월드컵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고 한국과 아쉬운 이별을 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와 아드보카트 감독은 15일(이하 한국시간)로 '재계약을 위한 협상 시한'이 만료됐다.

이는 지난해 9월 협회와 아드보카트 감독이 예초 계약서에 사인을 할 당시 양측 간 이미 '양해'가 이뤄졌던 사안이다.

하필이면 독일월드컵 본선 기간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프랑스와 조별리그 2차전을 눈앞에 둔 시점에 협상 시한 만료일을 정했다는 의문이 남지만 엄연한 계약 사항인 만큼 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월드컵 이후 감독의 진로에 대한 일종의 양해 성격을 띤 조항"이라고 말했다.

월드컵과 같은 큰 대회에 끝나면 세계적 명장들이 대거 수직·수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해야만 향후 거취 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아드보카트 감독이 축구협회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축구협회 고위 인사 가운데 어떤

쪽에서도 재계약 성사를 암시하는 반응이 나온 적은 없다.

축구협회는 정몽준 회장을 비롯해 이회택 부회장, 가삼현 사무총장 등 수뇌부가 모두 독일 현지에 와 있다. 이 가운데 감독 재계약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답을 주는 인사도 없다. 분위기 상으로는 독일월드컵 이후 차기 국가대표 사령탑은 아드보카트 감독이 아니라는 쪽에 강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특히 협회가 재계약 건을 수면 위로 떠올릴 수 없는 것은 '한국적 정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3일 토고전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쓴 뒤 19일 프랑스전을 앞두고 '결전 분위기'가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감독의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경우 선수단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고국에서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는 팬들에게 우려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드보카트 감독 본인도 거취 문제에 관한 한 내·외신을 불문하고 어떤 확실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클래스고 전지훈련 때부터 현지 스코틀랜드 언론을 비롯해 네덜란드, 러시아 취재진까지 아드보카트 감독의 거취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해답을 얻어내진 못했다.



호주-일본전 '월드컵 최고의 경기'

美 USA투데이 선정

미국 전국일간지 USA투데이가 팀당 1~2경기씩을 치른 15일(한국시간) 오전 현재 호주-일본전이 가장 좋았다고 평했다.

USA투데이가 인터넷판은 2006독일월드컵축구 '베스트 & 워스트'에서 "호주가 32년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라 0-1로 패하기 직전 10분 동안 세 차례나 골망을 뒤흔들었다"면서 호주-일본전을 이번 월드컵 최고의 경기로 선정했다.

신문은 이어 독일-코스타리카 개막전, 멕시코-이란, 튀니지-사우디 아라비아, 스웨덴-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경기를 좋은 경기로 꼽았다.

반면 최악의 경기 1위로는 G조 프랑스-스위스전을 들며 "0-0 경기의 지루함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혹평했다. 2위는 잉글랜드-파라과이, 3위는 브라질-크로아티아전을 들었다. 또 가장 훌륭한 경기내용을 보여준 팀으로는 체코, 스페인, 호주,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꼽았고 그 반대인 팀으로는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미국, 튀니지로 평가했다.

"분데스리가 선수들 뛰어난 활약"

총 39골 중 9골 차지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2006독일월드컵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별리그 17경기 가 끝난 1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현재 터진 39골이 가운데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선수들이 터뜨린 골은 모두 9개. 이번 월드컵에서 골맛을 본 분데스리가 선수는 7명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함께 유럽 리그에서도 가장 많다.

조별리그 A조 2차전 독일-폴란드 경기에서 첫 골이자 결승골의 주인공도 분데스리가 보루시아에서 활약중인 올리버 뉘블이었고 태극전사 가운데 유일한 분데스리가 안정환(뉘스부르크)은 지난 13일 G조 1차전 토고와 경기에서 역전 결승골을 터뜨려 MVP(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다.

분데스리가와 함께 월드컵에서 맹활

약을 펼치고 있는 그룹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이영표(토트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리그는 지금까지 8골을 넣었다. 그러나 독일월드컵 본선 최종엔트리에 포함된 선수 736명 중 프리미어리가 102명으로 가장 많이 앞으로 분데스리가 소속 선수들을 능가할 것이라 전망도 가능하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5골을 기록했고, 이탈리아 세리에 A와 프랑스 르 샹피오나 출신이 각 3골씩 넣으며 뒤를 이었다. 나머지 11골은 자국 내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천수(울산), 파울로 완초페(코스타리카 에레디아노), 오마르 브라보(멕시코 과달라하라) 등 9명이 터뜨렸다.

빅 리그를 팀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다. 첼시 선수들은 이번 대회 10,12,13호 골을 잇따라 넣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5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13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배재고-화순고 경기. 2회 말 3루수 에러로 진루한 화순고 김상은이 김만희 타석 때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화순고 '행운의 16강행'

배재고 포수 악송구로 득점 올려

동산·부산공고도 2차전에 합류



화순고와 동산고, 부산공고가 15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 13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주최) 셋째날 마지막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최종 합류했다.

▲배재고-1화순고 수비실책 하나가 승패를 갈랐다. 지루한 '0'의 행렬이 계속되던 8회말 2사 후 화순고의 고재대는 볼넷을 골라 출루한 뒤 곧바로 2루를 홈쳤다. 고재대는 배재고 포수 윤대현이 2루로 뿌린 악송구가 중앙 펜스 앞까지 굴러간 사이 3루를 돌아 홈을 밟았다. 양팀 합쳐 유일한 득점이었다.

배재고는 8안타 5볼넷을 때려내고도 타선의 집중력 부족으로 번번히 득점 기회를 날린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부경고-10동산고 동산고는 0-2로 뒤진 1회말 볼넷 2개와 도

루 2개를 묶어 2,3루를 만든 뒤 상대 투수의 폭투를 틈타 안타없이 동점을 만들었다. 동산고는 3회에도 선두타자 정원이 상대 수비 실책으로 출루한 뒤 볼넷과 몸에 맞는 공으로 만든 무사 만루서 최진혁이 우중간을 꿰뚫는 싸늘이 2루타로 3점을 보냈고 계속된 공격에서 볼넷 2개와 몸에 맞는 공 2개를 묶어 2점을 쓸어들었다.

5회에는 볼넷 2개로 만든 2사 1,2루서 왕석호가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2점을 얻는데 이어 상대 투수의 폭투를 틈타 1점을 더 달아났다.

부경고(구 경남상고)는 1회초 선취 2점을 뽑아낸 뒤 7회 2사 만루서 박태영의 중전 적시타로 선취 2점을 뽑아낸 뒤 정하늘의 내야안타로 1점을 추가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부산공고는 1회초 몸에 맞는 공과 볼넷, 내야 안타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이상욱의 중전 적시타로 선취 2점을 뽑아낸 뒤 정하늘의 내야안타로 1점을 추가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부산공고는 4회 1사 2,3루서 정현호의 희생 플라이로 1점을 추가한데 이어 9회초 2점을 더해 승부를 매듭지었다. 부천고는 상대 선발 이영일의 위력투에 철저히 눌린데다

4회말 무사 2루 등 득점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무등기)

- (16강)
북일고-전주고(10시)
공주고-진흥고(12시 30분)
성남고-경동고(15시)
원주고-마산고(17시 30분)
(양쪽이 선공·1루쪽 더그아웃·이상 무등경기장)

이승엽 20·21호 홈런 썼다

센트럴리그 홈런 1위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시즌 20호·21호 홈런을 잇달아 쏘아올리며 마침내 센트럴리그 홈런 1위로 나섰다.

이승엽은 15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인터리그 5차전에서 0-0이던 4회 무사 1루에서 상대 팀 우완 선발투수 가와고에 히데타카의 가운데 날개 떨어질 것 패스트볼(130km)을 퍼올려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선제 투런포(비거

리 125m)를 작렬시켰다. 이어 6-1로 앞선 7회 무사 1루에서 다시 바뀐 투수 기쓰야 마모무의 초구를 잡아 당겨 우측 펜스를 시원하게 넘어가는 투런포를 터뜨렸다.

전날에 이은 이를 연속 대포로 이승엽은 62경기 만에 21호 홈런을 쏘아올려 센트럴리그 홈런 1위인 무라타 슈이치(요코하마)를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랐다.

아울러 이날 경기 없던 애덤 리스(야쿠르트·13개)를 누르고 14개로 인터리그 홈런 선두로 올라서 2년 연속 교류전 홈런왕을 눈앞에 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애너하임 입단 최현 계약금 135만달러



한인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 LA 애인절스 오브 애너하임 구단에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5번에 지명된 재미동포 최현(미국명 최현 행크 콩거)이 계약금 135만 달러에 사인할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가 15일(이하 한국시간)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말을 빌려 그가 16일 헌팅턴 비치 고교 졸업식을 마친 뒤 17일 애일절스 구단 사무실에서 입단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135만 달러는 지난해 미네소타 트윈스가 최현처럼 1라운드 전체 25번으로 지명한 투수 맷 가르시아가 받은 액수와 똑같다.

최현은 남가주대학(USC) 야구 장학생으로 가입학 절차를 밟던 중이었으나 애인절스 지명 후 프로 진출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신문은 최현의 가족과 가까운 인사의



'홈런왕'을 향하여 이승엽이 15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5차전 4회 무사 1루에서 상대 팀 우완 선발투수 가와고에 히데타카의 볼넷 패스트볼을 때려 선제 투런포를 작렬시키고 있다. /연합뉴스